

영산강환경청,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 봐주기

자격 미달 업체 불허가 반려조치 없이 4개월 끌어

유권해석 내린 환경부 보완 조치도 무시 특혜 의혹

영산강환경유역청이 정부의 유권해석도 무시한 채, 법정 기간을 넘긴 사업에 대해 해당업체가 요건을 충족될 때까지 기다리는 행정을 펴 비난을 받고 있다.

영산강환경청이 광주 남구 양과동에 들어설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에 특혜를 베풀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영산강환경청이 허가기간(4년)을 넘겨 법적 시효가 만료된 사업에 대해 적절한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아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23일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인 H업체는 지난 3월 21일 영산강환경청에 폐기물 처리시설 허

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해당 업체는 지난 2010년 4월 1일 영산강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냈고 심사를 거쳐 '적합 통보'를 받았다. 폐기물 관리법(25조)에 따르면, 업체는 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환경부 장관에게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총 4년 안에 허가를 받으면 된다. 이에 따라 H업체는 기한 만료(3월31일)에 걸리지 않기 위해 지난 3월21일 허가서를 제출했다.

이 같이 해당 업체가 허가서를 4년 이내

에 제출했으나 문제는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등 시설과 설비를 완료하지 않은 채 허가 서류를 제출한 데 있다.

허가 신청을 접수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했으나 관련법에 따라 불허가나 반려, 보완 등의 처분을 10일 이내에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4개월이나 시간을 끌었다.

이에 앞서 영산강환경청은 삼급 기관인 환경부에 법정 기간이 4년을 넘긴 후에도 기간 연장이 가능한 지 여부를 유권해석 의뢰하기도 했다. H업체가 의료폐기물 시설 건축을 취소한 남구청과 대법원까지 법정공방을 벌이느라 27개월 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만큼 업체에 기간을 좀 더 줘도 괜찮느냐는 내용이었다.

환경부는 법정 공방이 있었지만 법에서

정한 기간인 4년에서 더 이상 연장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영산강환경청은 환경부의 위법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행정 집행을 하지 않았다. 즉 환경부와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H업체가 허가를 신청한 지 116일 만에 '보완' 통보를 내렸다. 결국 환경부의 지시도 무시한 채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특혜를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영산강환경청 관계자는 "특혜 의혹은 말도 안된다. 환경부 유권해석 답신 자체가 늦어진데다 또 다시 소송에 휘말려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한 뒤 최근 업체에 대해 8월 말까지 미비점 보완을 통보했다"면서 "허가 기한 4년에 관해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서 문제가 생긴 것 뿐"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농사 지으면 손해” 영광군 농민회 소속 농민들이 정부의 쌀 시장 개방 정책에 항의하는 표시로 23일 영광군 백수읍 죽사리 논을 갈아엎고 있다. 한 농부가 트랙터를 몰고 벼가 자라고 있는 논을 갈아엎는 동안 이를 지켜보던 100여명의 농부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한숨만 내쉬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성난 농심

영광 농민들 “정부 쌀 개방 반대” 트랙터로 논 600여평 갈아엎어

“내 자식처럼 키운 새끼들인데, 오죽했으면 억지도 않은 벼를 갈아엎겠습니까.” 23일 오전 11시10분께 영광군 백수읍 죽사리에서 만난 강민구(52)씨는 자신의 논두렁(1938㎡·600평)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트랙터에 올라타 뒤 시동을 켰다.

트랙터는 직선거리 100m에 달하는 논을 수 차례 오가며 갈아엎었다. 30분이 지

났을 무렵, 트랙터의 굉음이 멈춰서자 질 녹색을 띤 논이 물결은 잿빛으로 바뀌었다. 논두렁에선 “식량주권 포기 선언 박근혜 정부 물러나라”, “정부의 농업보호정책 웬 말이나”라는 농민들의 울분이 끊임 없이 쏟아져 나왔다.

강씨는 트랙터에서 내린 뒤 잿빛으로 변한 자신의 논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벼

수확은 되려 손해”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강씨의 논에서 연평균 수확되는 나락은 한가마니 40kg 기준 26가마니(한 가마니 5만2000원).

하지만 자재비(비료·모판 등) 50만 원과 농기계 임대료 20만 원, 인건비 140만 원(하루 7만 원·20일 기준) 등 최소 21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결국 강 씨가 벼 26가마니를 수확하면

135만2000원을 버는데 생산비용이 210만 원 소요돼 74만8000원의 손해를 보는 셈이다.

영광군농민회 이석하 사무국장은 “정부가 쌀보호정책을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아무런 의견 수렴도 없이 쌀수입 전면개방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영광군농민회 소속 70명은 이날 강씨의 논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쌀수입 개방 등을 비난하면서 논 갈아엎기 항의 시위를 벌였다.

/박기용 수습기자 pboxer@kwangju.co.kr /영광=조익성기자 ischo@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5 몰림 03:13
해질 19:42 몰짐 17:31

주말까지 장맛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5~40mm의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비	24/30	보성	비	24/30
목포	비	24/30	순천	비	25/30
여수	흐림	25/28	영광	비	25/29
나주	비	24/30	진도	비	25/29
완도	비	25/30	전주	비	24/31
구례	비	24/31	군산	비	24/29
강진	비	25/29	남원	비	23/31
해남	비	25/30	속산도	비	23/27
장성	비	24/30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동~남	0.5~1.0	남동~남	0.5~1.0
남해	앞바다	남동~남	1.0~2.0	남동~남	1.0~2.5
남해	서부	남동~남	0.5~1.5	남동~남	0.5~1.5
남해	남부	남동~남	1.5~3.0	남동~남	1.5~3.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5:56	00:28	17:54	12:23
여수	07:28		01:35	
	20:05		13:28	

주간 날씨

25(금)	26(토)	27(일)	28(월)	29(화)	30(수)	31(목)
☁	☁	☁	☁	☁	☁	☁
25/29	25/28	24/29	24/32	24/32	25/32	24/32

생활지수

식중독	56
운동	40
빨래	70

“자사고 하지 말란 말이나”

광주교육청, 성적제한 폐지 등 조건부 승인

송원과 강한 반발...“공동 대응 모색 하겠다”

광양제철고 재지정 결정

광주 송원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이 ‘조건부 승인’ 했다. 하지만, 송원고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적제한 폐지 등이 승인 조건이어서 학교 측과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전남지역 자사고인 광양제철고는 지정 연장이 승인됐다. 광주시교육청은 23일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송원고의 자사고 지정 연장을 조건부 승인하고, 이를 장휘국 교육감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전남·전북·경기·충남 교육청과 연합평가단을 구성해 송원고 운영성과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기준점 이상의 ‘보통’ 판정을 받았다. 취소할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평가단의 평가를 존중하지만 정책적 판단에 대한 고려가 없어 수긍할 수 없다’며 다섯가지 조건을 달아 승인 결정을 했다.

위원회는 신입생 전형방식에서 성적 제한을 없애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송원

고는 성적 상위 30% 이내에서 선발했다. 또 법인 전입금 확대, 기초교과 이수 단위 비율 확대(국·영·수 축소),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축, 인근 학교·일반시민 평가 참여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송원고가 같은 조건을 수용하느냐다. 자사고로서의 장점은 모두 없애고, 단점만 고스란히 감수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명환 송원고 교장은 “평가결과가 좋게 나왔는데도 자의적인 조건을 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성적제한 폐지·기초교과 이수단위 비율 확대 등은 자사고로 운영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정대훈 송원학원 사무처장은 “변별력 없고 등록금만 3배나 비싼 학교에 누가 오겠느냐”며 “학교 측과 학부모, 전국 자사고 협의회 등과 공동대응을 모색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날 광양제철고의 자사고 지정 연장 승인을 결정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광양제철고 평가 결과, 우수한 점수가 나왔다”며 “지정 취소할 이유가 없어 승인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기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복중알가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X,핀X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는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추신(D) 대신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질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미화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